

■ 청산도 구들장논 세계농업유산 등재 의미와 과제

## 농산물 판매·관광객 늘어 농촌 활성화 기대

### 이농으로 버려지는 논 급증…보전대책 시급

완도 청산도 구들장논이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의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된 것은 지역 농업·농촌 활성화를 위해 서는 반가운 소식이다.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되면 인근 지역의 농수산물 판매량이 늘고, 관광객이 몰려오는 등 지역 경제 과급효과도 크다.

반면, 일부 구들장논은 농사를 짓지 않아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는 등 풀어야 할 숙제도 많다.

◇선조의 지혜 담긴 생명의 보고=구들장논은 전통온돌에 쓰이는 널따란 구들장을 논비단에 깔고 그 위에 흙을 부어 만들었다. 산비탈에 논을 만들고 물을 가두기 위해 협진처럼 인공적인 바닥을 만든 샌이다. 작은 논은 50~60평, 큰 논은 1000평에 달한다. 현재 완도군이 파악한 청산도의 구들장논은 부흥리, 양지리, 상서리 일대 57필지 4.9㏊에 달한다. 하지만 아직 발견되지 않은 구들장논이 더욱 많은 것으로 완도군은 보고 있다.

물을 가두기 위해 구들장을 사용한 것도 놀라운 발상이지만 구들장논은 과학적인 물관리 시스템도 독보적이다. 물을 가두고 사용하는 것은 다른 지역의 다방 이논(계단식 논)과 비슷하지만 흡은 땅에서 효과적으로 농사를 짓기 위해 따로 수로를 만들지 않고, 논바닥 아래에 만들었다.

구들장이 깨질 수 있어 농사를 짓을 때 기계를 쓰지 않고, 친환경 재배를 하기 때문에 생활종도 다양하다. 구들장논 일대에는 멸종위기 1급 구렁이, 2급 긴꼬리토구새우 등이 서식하고 있다. 또 도롱뇽, 참개구리, 청개구리, 누룩뱀, 능구렁이, 도마뱀, 조롱이, 말똥가리, 두견, 큰한색머리아비, 뿔날병아리, 가마우지, 왜가리 등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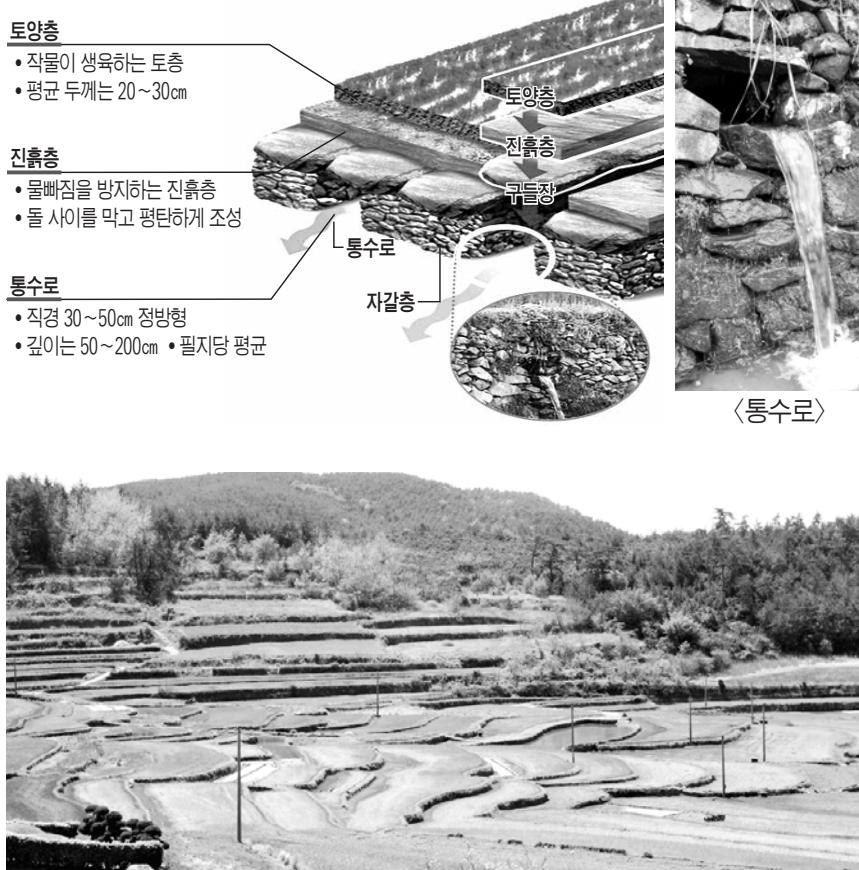
◇지역 농업·농촌 활성화 기대= 지난 2011년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된 일본 이시카와(石川)현 노토(能登)반도 일대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은 유명 백화점과 호텔에 대부분 판매되고 있다. 또 ‘세계농업유산 노토반도 아야’라는 브랜드를 만들어 다른 지역 농수산물보다 20~30% 가량 비싸게 팔고 있다. 노토반도의 농업유산을 보기 위해 한 해 관광객만 1만여 명이 다녀가고, 이 일대의 일본 전통술도 덩달아 판매가 급증했다.

무엇보다도 세계농업유산 등재로 노토반도 일대에 친환경 농업이 확산하고 있다. 이시카와 현청에 따르면 노토반도 인근 8개 마을에서 친환경 농업을 하고 있고, 올해에도 1개 마을이 추가로 친환경농업에 동참했다.

◇이농으로 버려지는 논 늘어=농사를 짓지 않아 자연스럽게 허물어지는 논도 많고, 벼 대신 마늘만 심어 구들장논의 기능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게 보존을 위한 가장 큰 장애물이다.

그나마 지난해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돼 구들장논의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졌다. 완도군은 17억원을 들여 오는 2015년까지 정확한 현황을 조사하고, 부

#### ■ 청산도 구들장논 구조



완도 청산도 구들장논이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돼 지역 농업 활성화와 관광 산업 발전 등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은 청산도 구들장논 전경.

〈광주일보 자료〉

지를 구입하는 등 구들장논 보전에 나선다. 구들장논 관리대장도 제작해 보존상태를 조사해 훼손된 곳을 재정비하고, 물 확보를 위한 관정도 개발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농업유산의 가장 확실한 보존은 “과거의 방식대로 계속 농사를 짓는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완도군 관계자는 “세계중요농업유산을 보존하기 위해 도시민들이 현지인 대신, 농사를 짓는 방식 등 다양한 보존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문화콘텐츠산업 전국 비중 0.9%→5%로

### 광주시, 행복문화경제 프로젝트…작은도서관 500개로 늘려

정부의 ‘문화콘텐츠 산업 특화 도시’에 선정된 광주시가 후속 조치로 빛고을 행복문화경제 프로젝트를 마련하고, 쇠퇴한 송암산업단지 개발 등 7대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3일 오후 광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송암산단 미디어산업 클러스터 구축 ▲CGI센터 인근 아외영화촬영소 조성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 문화 삼각벨트를 활용한 문화산업 육성 ▲

문화전당 개관 대비 문화전당 주변 활성화 ▲7개 문화권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거점 육성 ▲도서관시설 대폭 확충 ▲KTX연계 문화관광 활성화사업 추진 등 7대 전략을 제시했다.

강 시장은 “광주는 그동안 CGI센터 건립, CT연구소 개소, 문화산업 투자 진흥지구 지정, 문화산업 투자 조합 펀드 조성 등 문화산업 발전의 기틀을 확실히 다져왔으며, 정부의 문화콘텐츠 산업 특화 도시 선

정으로 이들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면서 “KTX 개통, 아시아문화전당 개관과 함께 광주가 문화콘텐츠 산업 중심 지역으로 도약하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문화콘텐츠 산업의 전국 비중을 2012년 기준 대비 2018년까지 매출액은 0.9%에서 5%로, 종사자 수는 2.1%에서 7%로, 업체 수는 3.5%에서 10%로 끌어올리겠다”면서 “이번 프로젝트에서 광주 지역 5개 자치구의 문화시설·문화활동기반 등도 재점검해 균형적으로 배치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고 말했다.

강 시장은 또 “CGI센터 인근 51만㎡ 규모의 그린벨트 지역에 메가 오픈 세트장과 실내촬영 스튜디오, 테마형 편의시설 등을 갖춘 맞춤형 야외 영화촬영소를 조성하기 위해 현재 수도권기업과 협의 중에 있다”면서 “이는 전 세계 영화계를 장악하고 있는 할리우드의 축소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시장은 이 밖에도 “시민들의 생활 속에 문화예술이 스며들 수 있도록 현재 20개에 불과한 공공도서관을 30개로 확장하고, 작은 도서관 500개로 늘려 모든 광주시민이 걸어서 10분 내에 도서관에 갈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장·전남지사 후보 경선 참여 국회의원

## 의원직 사퇴 사실상 불가능

### 강 시장 예비후보 등록도 어려워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장, 전남지사 후보 경선에 참여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의원직 사퇴는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3일 노동래 사무총장은 광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경선에 참여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예비후보 등록은 경선 이전까지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중앙당의 방침을 거부하고 예비후보 등록을 강행하지 않는 한 경선에 참여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의원직 사퇴는 사실상 어렵게 됐다.

노총장은 강운태 광주시장의 예비후보 등록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강 시장의 예비후보 등록은 이용섭 의원의 예비후보 등록을 부르고, 이용섭 의원의 예비후보 등록은 주승용, 이낙연 의원의 예비후보 등록을 떠미는 ‘도미노’ 현상을 일으

킬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강운태 시장에게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의원들은 충분히 경선 운동에 나설 수 있는 반면, 강 시장은 직무 시간 이후에야 제한적인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강 시장이 예비후보 등록을 할 경우, 경선 전까지 20여 일 동안 직무가 정지되고 경선 이후에는 승패와 관계없이 다시 현직에 복귀, 행정 공백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원직 사퇴가 이뤄지는 현직 국회의원들과는 상황이 다르다.

이에 따라, 중앙당이 국회의원과 단체장의 예비후보 등록을 분리해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이용섭 의원과 윤장현 후보는 예비후보 등록 없이 자유로이 경선에 대비하는 반면, 강운태 시장은 상대적으로 제약을 받고 있다”며 “공정한 경선이 펼쳐질 수 있도록 중앙당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선관위, 지방선거 개표사무원 25% 첫 국민공모

종양선관위는 6·4 지방선거 개표사무원의 25%를 첫 국민 공모로 선정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국민의 선거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개표관리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공모 기간은 7~11일이며, 공모 방법은 중앙선관위 및 시·도선관위 홈페이지에서 지원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희망하는 지역의 구·시·군 선관위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이메일로 보내면 된다. 지원자격은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하고 야간에 밤샘 개

표사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예비후보자나 입후보예정자의 친족, 관련 단체 직원 등은 제외된다.

선착순으로 접수받고 나서 서류심사를 거쳐 추첨으로 정하며, 최종 선발자는 구·시·군 선관위 개표소의 개표사무원으로 위촉돼 개표부, 투표지분류기 운영부, 심사집계부에서 직접 개표에 참여하게 되고 보수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소정의 수당과 여비가 지급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오바마 25일 1박2일 방한…취임 후 네 번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오는 25일부터 1박2일간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방한에 앞서 23일부터 2박3일간 일본을 국빈방문할 것으로 전해졌다.

워싱턴 외교소식통들은 2일(현지시간) “오바마 대통령이 예정대로 한국을 1박2일 일정으로 방문할 것”이라며 “다만 일본은 국빈방문의 격을 살리려면 최소 2박3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해 미국이 이를 수용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당초 오바마 대통령은 일본을 한국과 마찬가지로 1박2일 방문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했으나, 오바마 대통령은 일본과 한국 방문에 있어 막말레이시아, 필리핀을 순차적으로 방문할 예정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방한기간 박근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강력한 한·미 동맹세계 유지와 미국의 대 한반도 안보공약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최근 상황 평가 ▲북한 비핵화 촉진 방안 ▲한미 자유무역 협정(FTA)의 지속적 이행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한국의 교육 또는 문화이벤트에 참여하고 주한미군 관련 행사에도 참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대통령이 일본을 국빈방문하는 것은 1996년 빌 클린턴 대통령 이후 18년 만에 처음이다. 방한 기간에는 일본 왕궁에서 환영 행사와 만찬회 등이 열릴 것으로 예상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일본과 한국 방문에 있어 말레이시아, 필리핀을 순차적으로 방문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 신축원룸 매매전문(전대1분)

## 수익성상가 매매전문

## 금당공인중개사

### 저희는 매매·교환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 감정가이하

- 금대 광주은행본점 부근 대인동 대로변 649㎡(210)건물 522㎡(158)공시지가 11억6천 매도 11억
- 지하철 쌍총역 4거리 대로변 준주거 377㎡(111)병, 의원 사옥, 학원 자동차정비시설등 적합 7억 천
- 동명동 대지 318㎡(96)건평 228평 상가·주택, 원룸등 18개 전세 1억 2천선에 월 500선 매도 9억 6천
- 전남대앞 신안동 4거리 상업지역 대지 446㎡(136)4층건물 322평 은행 3억 매도 7억 2천
- 동구 대지 542㎡(164)건물 3968㎡(1200)18억 2천
- 동구 예식장 대지 1924(582)건물 3287㎡(994)묘양병원 등도 적합 감정 47억 3천 매도 27억 3천
- 남구청 부근 대로변 병원 요양시설등 적합 대지 1461㎡(442)6층 건물 3656㎡(1015)매도 36억 3천
- 담양군 대덕면 고속도로점 관리지역 8553㎡(2587)평탄 한강·공장·창고등 적합 대출 1억 6천 매도 2억 2500만원
- 상동 쌍총동 원룸, 투룸 건물 대지 222㎡(67) 건평 330㎡(100)지하 철 운천역 1분거리 보증금 2천선 월 수익 300 매도가 3억 6천
- 투자·매월동 매월자수지역 대출 1억 6천 매도가 31억
- 쌍총동 융산그린아파트 부근 2층 주거지 674㎡(316)다가 구·디세대적합 공시지가 4억 3천 매도 4억 5천
- 한라봉농장 낙지시 1번남면 7187㎡(2178) 연 6천만원정도 수입 전원생활에도 좋음 3억 8천 5백만원
- 교육도 가능한 산 보성군 득량면 68430㎡(20700) 1억 천
- 진도군 고군면 벽파리 벽파향에서 약 2km 산 16860㎡(5100)사찰·별장부지등 투자에 적합 2700만원

## 희망공인중개사

### 고객님의 성공을 희망합니다

#### 상가/건물

- ▶ 상무지구 신축건물 매 72억
- ▶ 쌍총동 광승간 대로변 3층건물 매매 12억
- ▶ 쌍총동 5층건물 매 15억(보1억7천 월656만원 포함)
- ▶ 화정동 교원공제부근 1층구분점과 225㎡ 매 12억(보1.3억)
- ▶ 월600만 원유프레너이즈 입점

#### 대지/전답

- ▶ 서구 치평동 중심상업지역 대지 750㎡ 매매 26억
- ▶ 서구 쌍총동 대로변 준주거지역 대지 661㎡ 매매 14억
- ▶ 서구 쌍총동 대지 5.000㎡ 32억(원룸단지적합)
- ▶ 남구 주월동 병원최적합 부지 2,290㎡ 매매 54억
- ▶ 북구 신안동 대지 3,100㎡ 매매 36억
- ▶ 북구 문동동 교도소부근 임대지 6,300㎡ 매매 50억
- ▶ 광산구 대신동 계획관지역 전 29,800㎡ 39억
- ▶ 세하동 창고 1,590㎡(건234㎡) 매매 7.2억
- ▶ 영암 삼호중공업 인근 주유소 매 8억(용5억)

#### 기타

- ▶ 광주·전남권 부동산 매도 매수 상담 환영
- ▶ 서구 치평동 라인동산아파트 102동 앞 상가 109호
- ▶ 010-5536-0382 062) 373-3082

## 금매매

###